

8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마태복음 · 요나 · 미가 · 나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8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마태복음 · 요나 · 미가 · 나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8

2010

August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마태복음 1장	2 마태복음 2장	3 마태복음 3장	4 마태복음 4장
8 마태복음 8장	9 마태복음 9장	10 마태복음 10장	11 마태복음 11장
15 마태복음 15장	16 마태복음 16장	17 마태복음 17장	18 마태복음 18장
22 요나 3장	23 요나 4장	24 미가 1장	25 미가 2장
29 미가 6장	30 미가 7장	31 나훔 1장	

September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마태복음 5장

6 마태복음 6장

7 마태복음 7장

교회 주요일정

8월 22일

제4차 학습세례식

12 마태복음 12장

13 마태복음 13장

14 마태복음 14장

나의 주요일정

19 마태복음 19장

20 요나 1장

21 요나 2장

26 미가 3장

27 미가 4장

28 미가 5장

- 1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10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순종, 영혼 구원의 기쁨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벤엘로 올라가라”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묶어 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하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기적을 전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보통 10남수

Ben King · 김 동영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 1장 · 찬송가 119장

신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혈통적, 법적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출신임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다윗 왕권은 거의 단절되어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법적 근거를 증명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인이자 다윗 가문의 오실 메시아 언약(삼하 7:12~16)의 주가 되심을 확신시켜야만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심은 언약의 후손 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유대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창 12:1~3; 17:7).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 중 하나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다말은 시아메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 되어있는 밋세바는 다윗과 간음하였습니다. 마태는 족보 자체로 볼 때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부끄러운 계보 속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하고 죄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한 신비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마 1:22~2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마태복음 2장 · 찬송가 120장

2

월요일

마태는 세 가지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세 가지 질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과 왕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왕이 이미 나셨고,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왕의 질문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5절)라고 답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을 연구하던 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침돌이 되었지만, 이방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온 땅과 온 인류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좇아 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보고도 믿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나심을 예언(미 5:2)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에게 묻거든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내 맘에 오소서” 답하며 내 삶의 보배함을 열어 엮으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마 2:6)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 찬송가 326장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은 이시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3절)가 예수님이심을 밝힙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영원히 저주 받은 뱀(창 3:14)의 자식이라 하며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작각하느냐고(7절) 책망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그들의 권위와 위선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9절)는 말씀으로 유대인의 선민 의식에 대한 특권을 책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썩혀 불에 던져지리라”, “썩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경고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첫 관문입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15절)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에 있어 교회의 예식에 순종하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요한의 세례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17절).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전인격과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갈 5:22~23).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엎드려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마 3:15)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 ① 매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1절)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리어”(1절) 가셨습니다. “그 때에”(1절)는 문장의 서두를 이루는 말로 “곧”(막 1:12)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후 즉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1:20)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한(3:17) 후 곧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막 1:12).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신 힘은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6)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4,7,10) 하는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도 “기록되었으되”(6절) 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간교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며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주리신 상태에서 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매순간 말씀을 앞 세우고, 시험을 이기고 보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기도제목

① 매순간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복이 있나니”(3~11절). 예수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 하십니다. 이 단어의 배후에는 모든 불행한 환경(예를 들면 “가난”, “애통”, “주리고 목마름”, “박해 받음” 등)의 원천인 죄에 대한 깨우침과, 이러한 불행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자기 의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린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악된 세상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21~47절) 명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또 인간 관계를 통하여 실천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20절)고 엄하게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48절). 철저한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17,48)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 찬송가 213장

6

금요일

구제(1~4절)와 기도(5~15절)와 금식(6~18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 종교적 의무로서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실천 문제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형식적 실천의 모습과 대조시켜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는(1,5,16,18절) 동기를 가지고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자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생활에 대하여 각 단락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2,5,16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내려지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천국의 도래를 기원하는 찬양과 간구를 담은 전반부 “이름이 ... 이루어지이다”(9~10절)와, 개인의 현실 문제의 도움을 간구한 후반부 “오늘 ... 구하시옵소서”(11~13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7:21; 18:14; 26:42; 요 6:29)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간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34절) 하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34절)라는 위로의 말씀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33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13~14절).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 중에 비판을 합니다. 마음 속에 비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깜짝 깜짝 놀라게 되곤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를 포함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실 것”, “찾아낼 것”, “열릴 것”은 이에 대칭되는 응답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기도의 처소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21절)가 구원을 얻지 못함은 예수님을 말로만 시인했지 실제 행동으로는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을 행한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23절)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24~27절).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날에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시는 기쁨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 7:13)

기도제목

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 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 찬송가 459장

8

주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1절).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1~4절), 백부장 하인의 증풍병을 고치시고(5~13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14~15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16절).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23~27절). 예수님이 고치시는 자마다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2절), “주여 내 집에 들어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8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15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 하더라”(34절).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후,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온 돼지 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일로 인함이었습니다(28~34절). 그들은 자신들의 돼지 떼가 몰사를 당하자 그 이상의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구원해 주실 분을 쫓아내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눈 앞의 이익,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시니라”(마 8:22)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팀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죄를 사하는 권능

마태복음 9장 · 찬송가 92장

믿음과 죄 사함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음에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에 대하여 “신성을 모독하도다”(3절)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5절). 어느 것이 더 쉽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메시아의 진정성과 그에 따른 권능을 보이시며 메시아의 궁극적 목적인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메시아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3절)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마 9: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뱀 같이 지혜롭고

마태복음 10장 · 찬송가 502장

10

화요일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내보내십니다.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행 4:13)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복음의 확산, 전개 경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2제자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5~15절), 이방인에게도 확장되는 부분(16~23절),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선교의 교훈의 말씀 부분(24~42절)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산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할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7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8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9절),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10절), 마을에 들어가 머물 물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고(11~12절),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며(14~15절),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16절) 명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제자의 삶과 선교의 지침입니다.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렵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30~31절)고 약속하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되,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원칙에 순종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마 10:18)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전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3절)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선지자의 마침표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적 메시아관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여러 가르치심을 듣고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였으나 메시아 구원의 참 본질과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사 29:18, 35:5~6)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5절).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사역(7~10절)과 세례 요한에 의한 선지자와 율법의 종결, 즉 구약의 종결(11~14절)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오실 그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27절). 하지만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28절) 약속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30절) 하시는 약속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쉬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 11: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증드는 모든 주의 종에게 기쁨과 감사와 환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선포하십니다(1~8절). 이 후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을 고발하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10절) 하는 함정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12절) 하시며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15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바알세불을 함입었다(24절)고 비난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6절).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8절) 하시는 말씀 듣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14절) 의논하는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청년이 나타나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우리도 역시 야단이 나고 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팔리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 성전보다 더 큰 이(6절), 요나보다 더 큰 이(41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42절)가 메시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우리의 심령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진정 주인 되기 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8)

기도제목

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1~8절), 가라지 비유(24~30절), 겨자씨 비유(31~32절), 누룩 비유(33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44~46절), 그리고 그물 비유(47~50절)입니다. 또한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 오는 집주인의 비유(51~52절)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53~58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풀지 못할 “비밀”이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비밀이 십자가임을 보여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길을 막아 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문을 막아버리며, 기도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덧입으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 13:1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 찬송가 371장

14

토요일

“그 때에”(1절)는 해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A.D. 39년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예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의 투옥(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난의 삶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표되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으신 기사는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14:13~21 ; 막 6:30~44 ; 눅 9:10~17 ; 요 6:1~14). 이 사건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과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30절)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할 때 부르는 소리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 비로소 주님께 돌아설 때 하는 첫 마디입니다.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사건의 결론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33절)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매 바람이 그침을 믿습니다(32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마 14:36)

기도제목

① 본래의 죄된 삶을 버리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5절)는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시므로 부모에 대한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막 7:11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봉헌의 맹세는 후대로 가면서 차차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왜곡되어 사람이 만일 “고르반”이라는 말을 써서 맹세한 경우, 그 맹세한 것이 부모의 부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모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고르반” 맹세 후 그 맹세한 것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7절)라고 책망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였으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경멸당하던 육체적인 불구자들(9:27)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민족적 특권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지만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으로(삼하 9:8; 16:9) “부스러기”(27절)라도 간청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의 전통을 뛰어넘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28절)고 응답받는 겸손한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마 15:27)

기도제목

① 교만을 꺾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고집하던 이들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표적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표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일을 찾으며 이러한 표적을 얻지 못할 때 믿음을 잃게 되는 불순종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귀한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항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빌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구태여 희생하지 말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자는 권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23절)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사람의 일이며, 사탄의 일이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하는 고백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보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4절)라고 베드로는 간청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5절)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으스스대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난에 대해 말씀하신 두번째 예언이었습니다(23절).

그 산에서 황홀하며 행복하였을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감추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근심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모두 도망 갈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변형되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이다”(15절) 고백을 드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마 17:7~8)

기도제목

- ①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 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1~10절), 길 잃은 양(11~14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15~20절), 용서(21~35절)의 말씀입니다. 각 단락의 결론은 “내 아버지의 얼굴”(10절), “아버지의 뜻”(14절), “내 아버지께서”(19절), “나의 하늘 아버지”(35절)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즉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로 향함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의 결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하며, 형제를 용서하며,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길 잃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멍들고 찢기고 상처를 입은 양을 부둥켜안는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더럽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13~14절).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14절).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시며 찾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막 10:17~31 ; 눅 18:18~30).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20절)의 표현을 보면 그는 자기 의를 주장하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은 선한 행위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2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재물을 다 내 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직시하심으로 구원이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에는 “~을 얻으리이까?”하는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6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25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2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26절)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은 사람의 선행에 의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엡 2:8~10). 믿음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24절)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 19:26)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하게 한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요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수십만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편협한 선민의식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신이 받은 사명도 무효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입장에서 가능한 자신을 깊이 숨기려는 심정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은 아직도 이기적인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꾀역함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요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며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며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심을 믿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기 위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우리의 모습도 용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욤후 1:17)

기도제목

①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여호와께서

요나 2장 · 찬송가 363장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장은 요나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나의 고난과 구원 받음(1~4절), 그 구원에 대한 감사(5~1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는 예수님의 죽음심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구원을 얻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직접 인용하셨던 비유이기도 합니다(마 12:40). 물고기 뱃속은 음부에 해당하는 “스올의 뱃속”(2절)에 비유될 정도로 절망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4절) 함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은혜를 믿고 있다는 신앙적 절규입니다.

1장 17절과 2장 10절은 “여호와께서”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9절)는 요나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상황들 역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했던 요나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이 스올에 내려가는 삶일지라도 여호와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욥 2:4)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여호와와 주관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네게 명한 바”의 명령으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라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나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서 선포합니다.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 온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회개시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까닭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베 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였으며(5~9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기 때문입니다(10절). 이것이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의 진정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재앙이나 심판이 아닌 구원과 사랑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명하시기 위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온 3:10)

기도제목

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의 감사로 가득찬 제4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4장 · 찬송가 214장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계속 성을 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1,4,9절). 요나서 전체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은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린 아이 같이 보채고, 성을 내며, 박넙쿨로 말미암아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요나의 투정을 받아 주시고, 요나를 달래시며, 대화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와 같은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요나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의 핵심은 말라 버린 박넙쿨이 아니라 별레를 예비하사 박넙쿨을 갇아먹게(7절)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또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11절). 우리도 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을 거둬들이면서도 성을 내며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기만 원하는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 또한 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욥 4:4)

기도제목

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묵도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3절). “땅의 높은 곳”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 정상상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 예루살렘이 아니냐”(5절). 이 구절은 두 개의 의문문으로 이루어집니다. “허물”은 이스라엘의 배반(왕상 12:19)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는 문자적으로 “누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7절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기생으로 표현한 데서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산당”은 “높은 곳”(3절)과 동일한 단어로 우상숭배지를 가리키며 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호 10:8). 그러므로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은 동일한 의미의 ‘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가장 부패한 도시로 손꼽히던 사마리아는 풍요와 영화의 대명사가 아니라 들판의 돌무더기, 황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호 12:11). 또한 우상 숭배의 부산물인 음행의 흔적을 모두 불사르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7절).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듭된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미 1:2)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남은 자, 길을 여는 자

미가 2장 · 찬송가 335장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악을 꾸미고 행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고발한데 비해 여기서는 인간 대 인간의 범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의 영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 백성들도 서로 다투어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과부와 어린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9절)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상실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던 미가는 “남은 자”(12절)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왕”(13절)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 받게 됨을 언약합니다.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13절)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는 혼탁한 유대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때문에 손해 보고,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은 자를 위하여 왕이 앞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련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아무 보상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피 한방울 남김 없이 쏟으셨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미 2:13)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미가는 백성들의 환란과 고통을 보며, 본분을 잊어버린 타락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1절). 유다 지도자들의 잔혹함은 마치 유다 백성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가족을 벗기고, 살을 뜯어 뼈가 발리는 도살장의 가축처럼 취급했습니다(2~3절). 예루살렘은 온통 무고한 자들의 피로 뒤 덮였습니다(10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4절).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11절). 당시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는 어떤 죄라도 담대하게 저지르는 물질의 노예요, 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같아엎은 밭과 같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12절). 미가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요, 가르치는 자요, 성가대원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합니다(8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미가 선지자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 3:8)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미가 4장 · 찬송가 501장

“여호와와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1절). 끝날에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분명해질 것이며,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전이 있는 산으로 달려가며,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배우는 데 열심을 품으리라 합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도를 따라 여호와와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십니다.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사 시온 산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6~7절). 성도의 고난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난과 같아서 그 고난이 심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10절).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곧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합니다(5절).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기 원하며 여호와와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선교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끝날에”(1절) 천하 만민이 여호와와 말씀에 굴복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 4:5)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이 장은 미가서의 중심으로 메시아의 탄생(2절), 메시아가 받을 박해(3절), 메시아의 사역(4~15절) 등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헬름 에브라다야”(2절)의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헬름”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의 뜻에 맞게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6절과 연관되어 인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의 “작을지라도”는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메시아가 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눅 1:52).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천한 베들레헬름에서 자신에게로 나온다고 말씀하심으로 자신과 메시아의 밀접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모두 “베들레헬름 에브라다야”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분은 베들레헬름의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구유에 임하신 은총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베들레헬름 에브라다로 나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베들레헬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 5:2)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마음에 모시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변론하여(1절), 변론을 들으라, 변론하시며, 변론하실 것이라(2절), 증언하라(3절), 기억하라, 알리라(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보며 억울해 하시는 안타까움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변론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몸부림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 “알리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하며 다시 한번 변론하자고 달려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 주시며, 주 앞에 “선한 것”(8절), “의로운 인생”(욥 9:2 ; 시 143:2)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변론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3절)고 분명히 장담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인한 아픔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할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으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8절)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미 6:3)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성실과 인애(20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미가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재앙이로다”하며 두려움과 슬픔의 애가를 부릅니다(1~6절). 그러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7절)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주의 지팡이로, 양 떼를 먹이시는 분이기예 옛날 같이 “떡이시옵소서”(14절)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옛날 같이 먹이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18절)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20절)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키십니다. 성실과 인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맹세하심에 대한 실천의 모습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초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19절).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옛날 같이 회복시켜 주시며, 성실과 인애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람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미 7:20)

기도제목

① 죄를 숨기지 않고 모두 내어드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니느웨의 멸망(1절)을 선포하는 것이 나훔의 사명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더욱 교만해져 결국에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훔서의 가장 핵심장인 이 장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증거해 주며(2~8절), 니느웨의 멸망(9~14절)과 그로 인한 유다의 구원(1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선하십니다(2~7절).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분노하고 질투하며 보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거룩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러한 감정들을 나타낸 것이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 것 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10절 ; 롬 10:15)은 앗수르의 멸망이며, 오랫동안 앗수르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될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우리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의 심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투기와 죄를 짓는 말을 일삼아 하던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죄 짓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나 1:15)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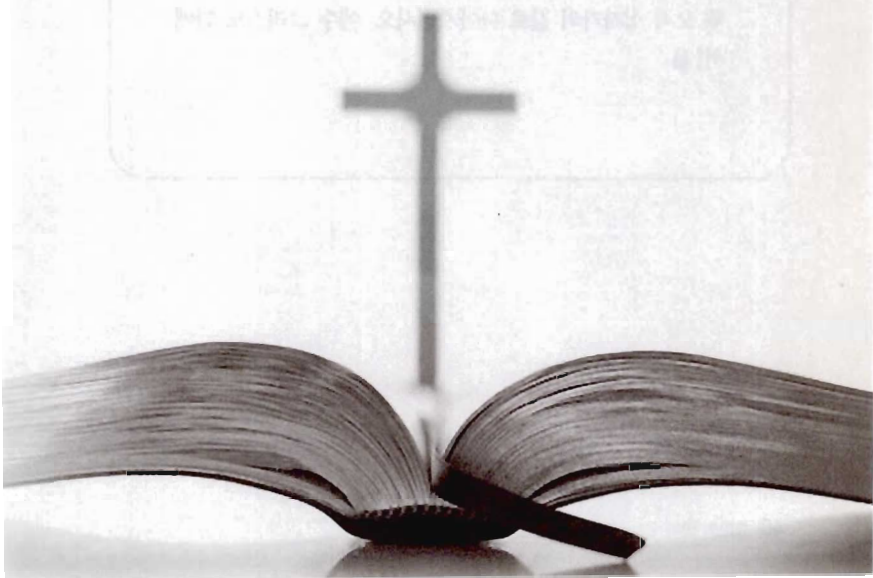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 ①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있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구역예배

8월 구역교재 초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탁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복음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악한 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며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고정한 채 오직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월 30일

열왕기상 19:19~21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 (The Call of Elisha)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8월 6일

골로새서 2:6~19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Walking Safely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8월 13일

마태복음 6:25~34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염려는 사라진다

8월 20일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 치유 (The Cross, The Cure)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치유를 받는다

8월 27일

베드로후서 3:1~5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Mockers Will Come in The Last Days)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7월 30일

1 과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

| 초점 |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본문 | 열왕기상 19:19~21

¹⁹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겹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²⁰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²¹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사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강력했습니다.

※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상 19:16). 하나님은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바쁘게 일할 때 부르신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바쁘게 일할 때 부르셨습니다.

왕상 19:19

엘리사는 밭 가는 시기를 맞이한 큰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자면 엘리사는 지금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뒤로 제쳐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에 대해 항상 '지금' 이 아니라 '나중'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고후 1:1, 뱌전 1:2)과 나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을 때 갈등이 생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등을 느꼈습니다.

왕상 19:20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든 그 때마다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갈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돈에 대한 사랑은 신앙심 깊은 신자의 영혼까지도 훔칠 수 있습니다 (막 10:21~22). 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물질적인 부는 마귀의 강력한 덫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잃고 맙니다. 세상의 것을 택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 버리시겠습니까?

막 10:25

눅 18:29~30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엘리사는 순종하였습니다.

왕상 19:21

엘리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과 기구를 불살라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자신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갈 것임을 알렸습니다. 엘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 마태복음 10:37~39, 16:24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받은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하 29~10

눅 9:62 /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_____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빌 3:8~9 _____

※ 갈라디아서 2:20 말씀을 암송하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약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바비큐 파티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새로운 선지자의 등단을 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2.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0년 8월 6일

2과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 초점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 본문 | 골로새서 2:6~19

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⑦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⑧ 아무도 꾸며 낸 겉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⑨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로 이끄는 많은 유혹들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는 세속적인 가설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수많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과 삶의 신비들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 2:2~3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데 필요한 천국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골 2:6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요 3:3).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 곧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갈 2:20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한 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골 3:1~2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 2:7

그리스도인은 뿌리를 깊게 뺏어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을 섭취하며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 2:8~9

세상 속의 많은 것이 보거나 듣기에는 좋지만 그것은 진실 되지 않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 2:7 /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우리를 거듭거듭 계속해서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골 2:10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종교 의식이나 영적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 골로새서 2:13~15 말씀이 주는 은혜와 확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 2:7 /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함을 넘치게 하라

만일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감사하며,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골 2:16~18

살전 5:18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보혈로 거듭나게 되고 세상에서 절대로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 1:21 _____

롬 15:13 _____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는 핑계거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말은 결국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위험한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말씀이 주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0년 8월 13일

3과

염려하지 말라

| 초점 |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염려는 사라진다

| 찬송 |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본문 | 마태복음 6:25~34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²⁶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 ³³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염려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집에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두려움이라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지금 나의 염려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특히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마 6:25).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게 된다

나의 주위,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게 됩니다.

마 6:26 _____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존하는 법과 함께 염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순간부터 대중매체는 걱정스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쏟아 붓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근심을 달고 삽니다. 근심을 던져버리십시오. 특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 6:28~29 _____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마 6:30~31 _____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마 6:32~33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알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 빈 칸을 채우세요.

나의 근심	근심의 원인	근심 해결방법

믿음의 제1조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약 1:6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감사해야 합니다.

마 6:34 / 그러므로 □□ □□을 위하여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염려가 내일 필요할 힘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는 오늘 쓸 에너지와 내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내일이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 6:27 _____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살전 4:17 _____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에 고정된 우리의 눈,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의 귀, 세상의 일에 상처 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내어 드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십시오.

빌 4:6~7 _____

말 4:2 _____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은총으로 염려가 아닌 참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2010년 8월 20일



십자가, 치유

| 초점 |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치유를 받는다

| 찬송 |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본문 |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와 십자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교회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엡 2:16

세속적인 분쟁과 비정상적인 행실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려진 대가를 직시할 때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분쟁이 해결된다

십자가는 우리를 분쟁에서 구원합니다.

고전 1:10~11 _____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고전 1:12~13 _____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시 면류관과 못 박힌 손과 발을 기억해야 합니다(눅 23:34, 42~43). 그리스도의 고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분쟁은 얼마나 편협한 행동입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는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모든 분쟁은 그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고전 1:18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나약한 사람들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롬 3:10~18, 20~23).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요 5:39~40

요 3:36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 갈라디아서 2:21, 요한복음 1:12~13, 이사야 53:5~6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의심에서 벗어나 믿는다

십자가는 우리를 의심에서 구원합니다.

고전 1:19

고전 1:21

십자가와 부활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롬 3:28 /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1:4~6 / _____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_____시니라 ... 너희도
그들 중에서 _____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 주며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골 2:14~15

고전 2:2

우리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기 자신, 세상의 가치 중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놓친 채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우상들을 붙잡기 위해 세상을 좇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죽음, 아니면 영원한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영원한 삶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10년 8월 27일

5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 찬송 |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 본문 | 베드로후서 3:1~5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쏟아질 엄청난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하고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종교지도자들과 병사들이 주님을 모욕했던 것처럼(눅 23:35~39)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을 것입니다.

※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행 1:11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애쓰며 그리스도를 비방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교묘하게 주님의 재림을 하찮게 만들고 비방하며 중상모략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비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예언을 믿지 않는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벧후 3:1~2

벧후 1:16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드러운 말로 속이는 수많은 비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진리입니다(벧후 1:19~21). 이 진리를 멸시하지 마십시오(시 2:2~6 ; 사 9:6~7 ; 욥 12:10, 13:6).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벧후 1:17~18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비웃는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조롱은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순결한 삶을 비방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비방합니다.

벧후 3:3

조롱하는 자들에게 도덕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현재의 삶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종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 노아 시대(창 6:13, 7:21~22)
- 소돔과 고모라(창 19:24~25)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민 32:13)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요일 2:28, 3:3

눅 12:40

그리스도의 재림약속을 의심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습니다.

벧후 3:4~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천지창조에서 이미 증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 무지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마 24:27~31, 44).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25:13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티를 열고 빙고 게임을 즐기며 하나님의 집을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살전 4:16~18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나의 믿음을 간단하게 써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 재림에 대해 말하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14:1~3 _____

계 22:20 _____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2.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 구역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염려하지 말라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²⁶⁾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

⁽³³⁾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피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25~34)

성경은 염려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 집에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두려움이라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특히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마 6:25).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존하는 법과 함께 염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순간부터 대중매체는 걱정스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근심을 달고 삽니다. 근심을 던져버리십시오. 특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음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던 적이 며칠이나 됩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음식을 모아 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우리는 어떤 새나 꽃에 견줄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제 아름다운 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꽃들은 스스로를 가꾸거나 치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8~29).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 6:30~31).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2~33).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 만한 것은 아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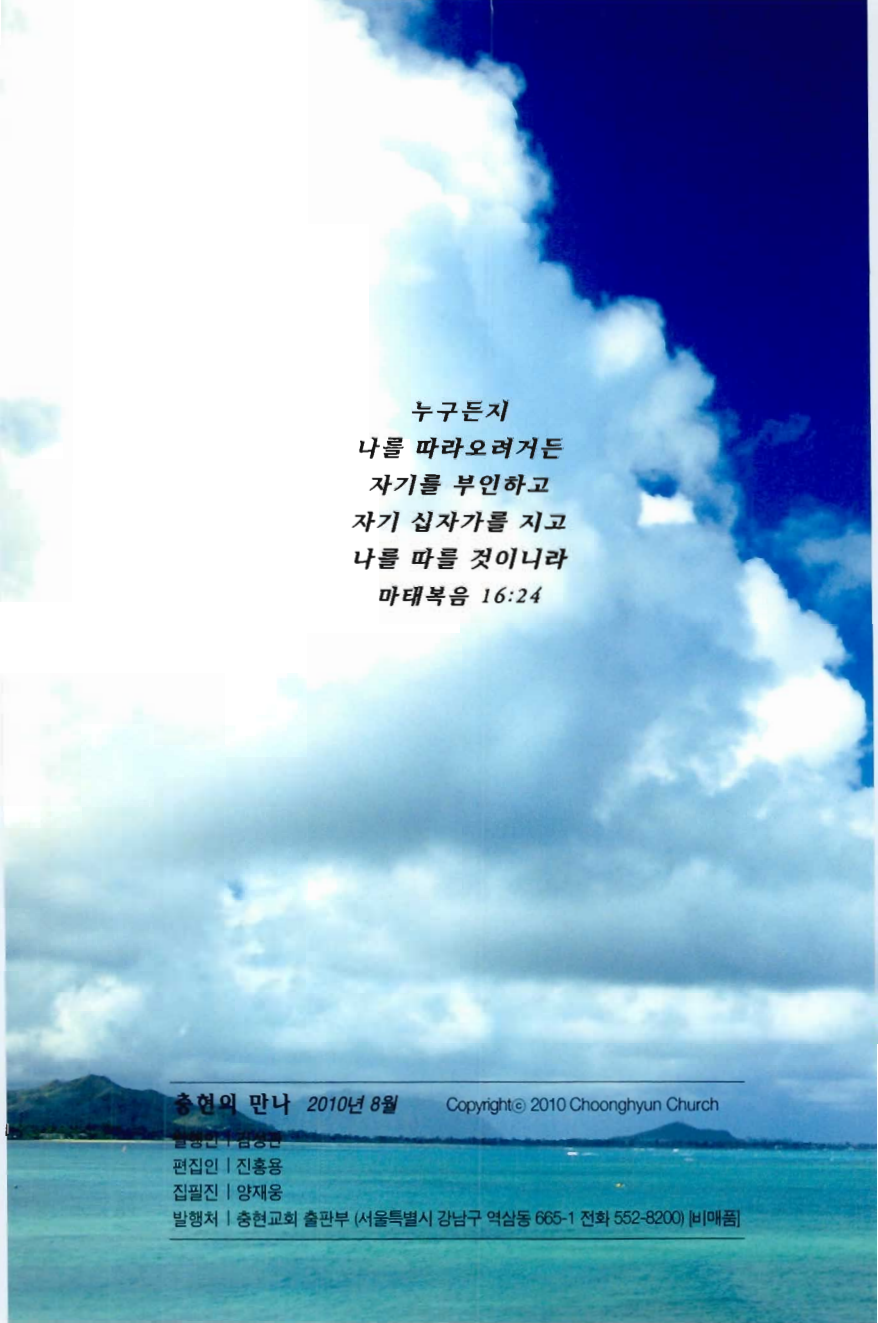
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알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가 증거한 믿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 1조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한 날씩,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내일 필요할 힘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염려는 오늘 쓸 에너지와 내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내일이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 6:27).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의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8월

Copyright©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